

2013년도 함평군의회 의원

국외(서유럽)연수 결과 보고서

연 수 개 요

- 기 간 : 2013. 3. 5.(화) ~ 3. 12(화) (6박8일)
- 인 원 : 4명(의원 3, 수행공무원 1)
- 연수국가 : 영국, 스위스, 프랑스
- 방문기관 : 런던 웨스터민스터시 의회 등 5개 기관·단체



함 평 군 의 회

= 목 차 =

I . 국외연수 개요	1
1. 연수배경 및 목적	1
2. 연수기간	1
3. 연수지역	1
4. 주요 연수장소	1
5. 연수자명단	2
6. 연수일정	3
II . 연수 내용	5
1. 영 국	5
가. 기관·단체 방문	6
- 웨스터민스터 시청 및 의회	7
나. 문화 탐방	10
2. 스위스	19
가. 기관·단체 방문	20
- 사회복지시설	20
- 스위스 축산농장	21
나. 문화 탐방	22
2. 프랑스	27
가. 기관·단체 방문	28
- 라데팡스 및 하수도 박물관	28
나. 문화 탐방	38
III . 연수 소감 (연수 후기)	46

I. 연 수 개 요

1. 연수배경 및 목적

- 서유럽 선진국의 지방의회운영, 복시시설 관리 등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정책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적 대응능력함양과 효율적인 의정운영에 기여
- 방문국 주요 문화·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체험하여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

2. 연수기간 : 2013. 3. 5.(화) ~ 3. 12.(화)/ 6박 8일

3. 연수지역 : 영국, 스위스, 프랑스

4. 주요 방문기관(장소)

○ 영 국

- 기관(단체)방문 : 영국 웨스터민스터 시청 및 의회
- 문화탐방 : 런던시 대영박물관, 버킹검궁전, 국회의사당, 웨스터민스터사원, 빅벤, 타워브릿지

○ 스위스

- 기관(단체)방문 : 사회복지시설, 축산농장
- 문화탐방 : 메른시, 인터라켄시, 쉴트호른,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 프랑스

- 기관(단체)방문 : 라데팡스, 하수도박물관
- 문화탐방 : 루브르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세느강, 노트르담대성당, 몽마르뜨 언덕

5.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	직책	성명	비 고
계	4명			
1	함평군의회	부의장	정수길	
2	〃	의 원	정철희	
3	〃	의 원	김국도	
4	〃	전문위원	김우석	수행공무원

6.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제01일 3/05 화	광 주 인 천 런 던	전용차량 KE 907 전용차량	05:30 13:10 16:20	함평 출발 /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출발 / 런던 향발 런던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PREMIER TRAVEL INN BATH ROAD or similar	중:한 식 석:현지식
제02일 3/06 수	런 던	전용차량	07:00 09:00 18:00	호텔 조식 ■ 런던 문화 탐방 - 국립 대영 박물관, 시계탑인 빅벤과 국회의사당, 명물 타워브릿지, 넬슨제독의 기념탑이 있는 트라팔가 광장 등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PREMIER TRAVEL INN BATH ROAD or similar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03일 3/07 목	런 던 취 리 히	전용차량 항공 전용차량	07:00 09:00 18:15 20:55	호텔 조식 ■ 방문일정 - WESTMINSTER CITY 시의회 방문 ■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 문화 탐방 - 영국 왕실의 산실인 버킹검 궁전, 왕족들의 사냥터였던 하이드 파크, 웨스트민스터, 등 런던 출발 / 취리히 향발 취리히 도착하여 인터라켄 이동 호텔 투숙 HOTEL : CENTRAL HOTEL or similar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도시락
제04일 3/08 금	인터라켄 바 젤	전용차량	06:00 07:05 12:00 18:00	호텔 조식 및 OST역 이동 ■ 알프스 영봉 중 하나인 쉴트호른 - 케이블카 탑승 - 영화 007 여황폐하 대작전의 무대로 유명한 알프스의 대표 산 하산하여 중식 후 루패른으로 이동 ■ 중식 후 바젤 시내 관광 - 스위스의 숨겨진 보석같은 예술과 건축의 도시 바젤관광 ■ 방문일정 - ALTERSHEIM REBWIES 호텔 투숙 HOTEL : MERCURE HOTEL or similar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제05일 3/09 토	바젤 벨포르트 파리	전용차량 기차	07:00 09:00 12:00 18:07 22:16	호텔 조식 ■ 방문일정 - ALTERSHEIM REBWIES ■ 루패른 시내 관광 -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등 ■ 중식 후 벨포트로 이동 벨포트 출발 / 파리 향발 파리 도착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도시락
				HOTEL : MERCURE HOTEL or similar	
제06일 3/10 일	파리	전용차량	07:00 09:00 18:00	호텔 조식 ■ 신도시 LA DEFENSE 견학 ■ 파리시내 관광 - 베르사이유 궁전, 개선문 전경, 샹제리제 거리, 오벨리스크가 있는 콩코드 광장, 오르세 미술관 만국 박람회 기념때 세워진 에펠탑 전망대 2층, ■ 석식 후 세느강 유람선 탑승하여 노트르담 조망 등 파리 귀환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 MERCURE HOTEL or similar	
제07일 3/11 월	파리	전용차량 KE 902	07:00 09:00 12:00 17:00 20:35	호텔 조식 ■ 방문일정 - 파리 하수박물관 ■ 중식 후 파리 문화 탐방 -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성심성당 등 석식 및 공항 이동 파리 출발 / 인천 향발 기내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08일 3/12 화	인천	전용차량	15:25 16:00 21:0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 출발 / 함평 향발 함평도착	조:기내식 중:기내식 석:한 식

Ⅱ. 연 수 내 용

1. 영 국

《일 반 현 황》

- 위 치 : 유럽 서북쪽 위치한 섬나라로서 북대서양에 둘러싸여 있음.
- 수 도 : 런던(인구: 707만명)
- 면 적 : 241,752km²(한반도의 1.1배)
- 인 구 : 약 5천 880만명
- 중 교 : 영국국교(50%), 카톨릭(11%), 개신교(30%),기타(9%)
- 기 후 : “하루동안에 4계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날씨가 변덕스럽고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온난함
- 국가구성 :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그 주변 작은섬으로 구성



가. 기관·단체 방문

□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청 및 시의회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6.(수) 11:00~12:00
- 장 소 :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회의실
- 참 석 자 : 7명(의원 3,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2, 전문통역 1, 공무원 1)
 - 웨스트민스터 관계자 : 2명(사이몬 가츠쇼어 - 시장 비서관,
리차드 크레이시 - 정책보좌관)
- 내 용 : 영국의 지방의회 구성 및 웨스트민스터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 및 대담

2. 설명내용

- 지리적 위치는 템스 강의 북쪽 제방을 끼고 있으며, 런던의 웨스트엔드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쪽으로 척허 자치시인 첸싱턴 첼시와 동쪽으로 런던시에 접해 있음.
- 주요 명소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버킹엄 궁전, 트라팔가 광장, 세인트 존 파크, 영국 총리 거주지인 다우닝가 10번지 등이 있음.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직을 겸직하는 시장은 시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
- 즉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하며,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의회의 예비심사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의 집행도 담당함.
따라서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국장은 각 소관위원

회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며 책임도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짐.

- 영국 전체적으로 433개의 지방정부에 11,000개의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700억 파운드(약 115조 5천억원) 예산에 2백만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선거로 약21,000명의 의원이 선출됨.
- 런던시에는 32개의 구가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시는 구보다 작은 시이며 60명의 시의원과 10명의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규모는 약 1.8조원 규모이며 48%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25%는 기업에서 나오며, 25%는 주민세, 기타 2%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비, 스포츠시설 운영비, 건물 임대 수수료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음.
- 웨스트민스터 시는 2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매일 1백만이 방문하고 있으며, 13.68km² 면적에 20개 선거구에서 60명의 시의원과 3,000개의 업소가 있음.
- 주로 하는 일은 노인과 어린이를 돌보고, 도로를 깨끗하게 하며, 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임.
- 웨스트민스터 시 집행부 구성은 의장이 10개 분야의 상임국장을 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1년에 1회씩 검증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교체함.
- 웨스트민스터 시의 현재 도전과제는 시의 북부지역의 빈곤문제(직업부족, 주택·교육 문제에 대한 지원), 예산절감(2천억 원을 4년에 나누어 절감), 노령화 문제(예산을 절감하며 노인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주자 정착문제(1년에 30% 이주), 독립적인 시가 되기 위한 준비 등임.

3. 질의답변

- (질문 1)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 65세부터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지급하고 있음. 영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 주택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데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적 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 (질문 2) 국민의료보험 제도는 있는가?

⇒ 의료보험 제도는 따로 없으나 사회보장 보험제도가 있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별로 소득액의 8~10%를 내야하고, 고용주는 8~12%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료 정책에 의해 6개월 이상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945년부터 의료비가 무료임.

⇒ 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의 제도에 따른 1차 진료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가능함. 좀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보험을 넣어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질문 3) 장애자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있는가?

⇒ 장애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장애자에게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장애를 입는 순간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 (질문 4) 침체된 지역 활력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있는가?

⇒ 특별하게 정해진 것보다도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에 지원하고 있음.

예) 항구지역(DUCK LAND)이 낙후되어 방치되어 있을 때 공청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입주회사는 5년간 영업세 무료, 임대료 10% 인하 등을 통해 모건스텐리 등이 입주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 (질문 5) 의원들의 보수는 어떠한가?

⇒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약 1,800만원임.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하고 있으며 영국의 셀러리맨들은 보통 연봉 1억원을 받고 있음.

○ (질문 6) 한국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데 영국 의회의 고유기능은 무엇인가?

⇒ 영국은 의회의원이 집행부 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없으나, 4명의 감사가 독립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질문 7) 의원이 되고자 하는 경쟁률은 어떠한가?

⇒ 메리트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음. 선거는 1당이 3명씩 공천하고, 투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선출함.

4. 시 사 점

- 영국의 자치단체제도는 기관통합형이나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각 지방정부의 행정수요와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역별로 다름.
-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해외원조, 통화관리 등 국가차원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편의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 경찰 및 소방 등을 제공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주민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육·경찰업무가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함.

《웨스트민스터시 의회 방문 사진》



나. 문화탐방

㉠ 런던

영국의 수도이며, 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江) 하구에서부터 약 60km 상류에 있다. [영국의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연방](#)의 사실상의 중심도시다. 뉴욕·[상하이](#)·도쿄와 더불어 세계 최대 도시의 하나다.

1888년 런던주(州)가 설치되었고, 1899년 시티오브런던을 제외한 지역을 28개의 [행정구](#)로 구분하여 런던 주청(州廳)이 통할하였다. 다만 런던 [경시청](#)([스코틀랜드 야드](#))은 주변의 여러 주에 미치는 수도 경찰관구를 관할하였다. 1963년 런던 [행정법](#)에 의해서 1965년 런던 주청이 폐쇄되고, 대신 시티오브런던을 포함한 32개의 행정구로 구성된 [그레이트런던](#) 주청이 설치되었다.

런던주는 종래의 런던주 외에 [미들섹스·하트퍼드셔·에식스·켄트·서리](#) 등 각 주의 일부를 포함한다. 수도정찰관구보다는 좁으나, [런던교](#)(橋)를 중심으로 반경 약 24km, 구(舊)런던주의 약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한다.

[버크셔](#)에서 남동해안을 향하여 뻗어나간 백악층 중앙에 있으나, 표면은 점토와 모래의 혼합토로 덮여 있다. 이것은 브리튼섬이 유럽 대륙과 육지로 이어져 있던 무렵에, 호수로 주입되는 많은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반이 비교적 약하여 근년의 건축기술이 발달하기까지 고층건축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지형은 남북 교외가 약간 높고, 템스강을 사이에 끼고 있는 시가지는 낮으나, 템스강이 자주 하도(河道)를 변경함에 따라 평탄한 시가지에도 기복이 있다. 기온은 한서의 차이가 작아, 연평균기온은 약 10.5℃이다. 북위 51°5'에 위치하나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강설량](#)도 적다.

한편 [여름](#)에도 기온이 높지 않으며, 7월 평균기온 17.6℃로 서울보다 7.1℃나 낮다. 강수량도 적어 연간 약 750mm로 서울의 50% 정도지만, [강수일수](#)는 훨씬 많아 1년의 반에 가까운 168일에 이른다. 겨울에는 강수량은 적으나, 대개 날씨가 흐려 어두침침하다. 또 런던의 안개는 유명하며,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걸쳐 자주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

최근 대기정화정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스모그](#) 현상이 해소된 것은, 하천정화정책에 의하여 템스강이 정화되기 시작한 것과 함께 중요한 변화였다. 바람은 [편서풍](#)으로 강풍은 거의 불지 않는다.

◆ 대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영 박물관은 러셀 광장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

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찬란한 꽃을 피웠던 전성기 때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1753년 영국정부가 첼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스 슬론경이 소유하고 있던 화석, 주화, 메달, 사진 등 80,000점이 넘는 컬렉션을 사들였다. 소장품의 규모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박물관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에서 대영 박물관 건립을 결정하였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과 질을 갖춘 골동품과 공예품, 유물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전시품을 위한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1759년 착공에 들어갔고, 1823년부터 50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서 83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짜리 건물로 1층과 2층에서 대영박물관을 대표하는 주요 전시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3대 인기 전시물은 미라(방60호), 엘진 대리석(8호), 5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제타 스톤(25호)이며 꼭 보아야 할 추천 전시물이고, 앗시리아 라마스 상(방 20호), 람세스 2세(25호), 파르테논 신전, 네레이트 제전(7호), 아메노피스 3세(25호), 목각의 관(25호) 등이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으로 꼭 방문할 것을 권한다. 상설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기간이 한정된 특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다.

《 대영박물관 》



◆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

트라팔가 광장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 입헌군주 정치의 중심인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은 영국 여왕의 런던 공식 거주지이다.

1702년 버킹검 공작의 런던 사택으로 지어졌고, 1762년 조지 3세가 사들여 왕족들이 거주하는 여러 저택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조지 4세가 존 내쉬(John Nash)를 고용해 구저택 주위로 새로운 건물을 짓도록 명령했고, 내쉬는 대리석 아치 입구가 인상적인 건물을 완성했다. 나중에 이 대리석 아치는 하이드 파크로 옮겨졌다. 이곳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처음으로 왕족의 런던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버킹검 궁전은 1993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램브란트, 루벤스, 카나레토 등의 작품이 포함된 대규모의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픽처 갤러리(Picture Gallery)를 관람할 수 있다. 버킹검 궁전은 왕실 근위병 교대식으로 유명하다. 격일로 행해지며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되고 약 45분간 진행된다. 장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72cm의 보폭으로 걷는 근위병들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름 휴가 기간인 8월초부터 약 2달동안에는 특별히 버킹검 궁전을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수년 전 원저성의 화재 복구비를 조달하는데 쓰여진다. 연간 5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회와 오찬, 만찬, 리셉션 등에 초대되어 이곳 버킹검 궁전을 방문한다.

《버킹검 궁전》



◆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

국회의사당은 화이트홀이 끝나는 템즈 강가에 있으며 7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국 의회 정치의 전당이다.

이곳에는 원래 웨스터민스터 궁전이 들어서 있었지만, 1834년 대화재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기 시작해 1860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다.

대화재 이후 디자인 공모에 참가한 97개의 작품중에서 Charles Barry and Augustus Pugin의 디자인이 당선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뛰어난 예술가들과 합세해 만들어진 고딕 스타일의 의사당 건물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0미터가 넘고, 1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다. 그 유명한 빅벤은 높이 95m로 아직도 손으로 태엽을 감는 전문적인 시간지기가 있다.

꼭대기 조그만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의회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국회의사당은 폭탄 테러 이후 입장이 어려워졌지만 방청 형식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빅벤이다.

《국회의사당》



◆ 웨스트 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의 서쪽, 파알라멘트 광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딕 건축 사원으로 영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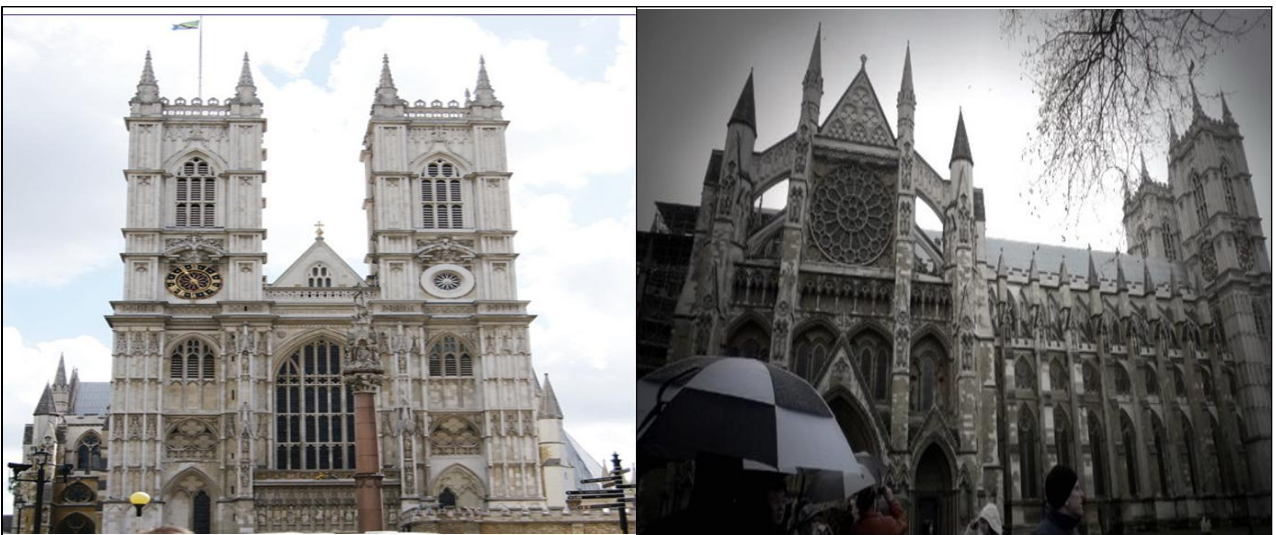
13세기에 착공에 들어가 약 250여년에 시간동안 만들어져 16세기 (1503년)에 완성된 사원 건물은 건축학적 견지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딕 양식의 중세교회이다.

웨스터민스터 사진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쪽 입구의 모습인데, 실제 이곳을 통해 사원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에 대한 경외심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이다. 일년 내내 예배가 이루어진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1066년부터 모두 42명의 영국 왕과 여왕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소로 유명하다. 그리고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도 이곳에서 펼쳐진다. 역대 영국의 왕과 여왕, 정치가, 작가, 음악가, 기사, 배우, 왕족 등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무덤으로 처칠의 묘, 엘리자베스 1세의 묘, 헨리 7세의 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묘 등이 가장 유명한 무덤이다.

《웨스터민스터 사원》



◆ 트라팔가 광장

런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트라팔가 광장(Trafalga Square)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런던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변에 런던을 대표하는 많은 관광명소가 들어서 있다.

1820년대 트라팔가 광장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존 내쉬였고, 1829년에 만들기 시작해 1841년에 완성되었지만 그는 완성된 광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광장의 북쪽에는 국립미술관이, 동쪽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다.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42년에 세워진 51미터가 넘는 높은 기둥으로 그 꼭대기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 있다. 실물의 3배 크기인 5.6미터의 넬슨 제독 동상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국의 국가 동물인 사자상, 분수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국다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사자상은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큰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노획한 프랑스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 4면의 철판부조에는 트라팔가 해전 나일강 해전, 덴마크·러시아·스페인 연합함대와의 전투기록이 담겨져 있다.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휴식장소로 사랑받는 장소이다.

◆ 빅 벤

1859년 E.베켓의 설계로 당시 4만 파운드를 들여 주조된 시계이다. 원래 빅벤이라는 명칭은 당시 공사를 담당한 벤저민 홀경(卿)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서, 원래는 종의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시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종의 지름은 약 274cm, 무게는 13.5t이며 시계탑의 전체 높이는 106m, 시침의 길이는 2.7m, 분침은 4.3m이다.

빅벤은 여러 번의 실험 끝에 1869년 현재와 같은 200kg의 당목(撞木)을 설치한 이후 114년 동안 별 고장 없이 정확한 시계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도 버텨낸 빅벤도 1976년과 1997년에 기계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2004년 4월말에는 종에 문제가 생겨 5월 9일 재가동하기 전까지 15분마다 울리던 종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보신각처럼 빅벤은 새해를 알리는 1월 1일에 영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 빅 벤 》



◆ 타워브릿지

영국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즈 강 위에 도개교와 현수교를 결합한 구조로 지은 다리다. 런던 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1886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1894년에 완성한 이 다리는 오늘날에는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수력을 이용해 개폐했지만 오늘날에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의 빅 벤과 함께 런던의 상징으로 꼽히는 타워 브리지.
조명을 받을 때면 하얗게 빛나는 야경이 장관이다.

1894년 총 길이 805m로 완성되었는데, 양 옆으로 솟은 고딕 양식의
탑이 무척 인상적이다. 탑과 탑을 잇는 산책길에서 바라보이는 전망
은 언제나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가운데가 열리도록 개폐형으로 만
들어진 타워 브리지는 다리가 열리는 모습이 장관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 자주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연 6,000회 정도 열렸던 다리가
이제 연 200회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 타워브릿지 》



2. 스 위 스

《일 반 현 황》

- 위 치 : 유럽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와 접해 있음
- 수 도 : 베른(Bern)
- 면 적 : 41,284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 구 : 약 758만명
- 종 교 : 카톨릭 48%, 기독교 44%, 기타 8%
- 언 어 :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 기 후 : 사계절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온화한 기후로 여름에도 시원하며 겨울이 눈이 많이 옵니다



가. 기관 · 단체 방문

□ 스위스 사회복지시설

- 방문일시 : 2013. 3. 8. (금)

○ 현 황

- 스위스의 인구는 758만명으로 65세이상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어 1990년 14.5%, 2020년에는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연금 예산도 2020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 예측됨
- 노인복지는 주로 주(칸톤) 정부중심으로 시행되어 지역과 여성, 남성에 따라 62~65세부터 지급
- 1980년부터 시행된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피텍스(Spitex) 제도는 노인 생활속으로 깊숙이 다가간다. 도시와 농촌을 포함해 주,야간 가정에서의 보살핌과 간호,가사도우미,식사배달,쇼핑,운전,산책에다 이발,미용까지 도와줌

○ 시사점

- 스위스는 노인시설에서 간호사 1인당 2~3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간호사는 양로시설당 1인, 요양시설 50인당 1인, 생활지도원은 양로시설 25인당 1인, 요양시설 10인당 1인, 전문요양시설 5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어 보호인원과 간호사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볼수 있음.
-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에서나 국민의 복지의식에서 비록되는 것이기 하나 노인복지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스위스는 어느 지역에서나 마을단위로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아동시설이라 해도 작은방과 농이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역시 지역센터와 양로원이 한울타리에 있음
- 이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지역사회내에서 사회통합차원으로 다루고 있으며 복지수혜자를 자선적 대상자가 아닌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노인복지시설 방문 사진 》



(스위스 사회복지시설 방문: 수용인원 16명에 간호사포함 관리인력 16명)

□ 스위스 축산농장

○ 방문일시 : 2013. 3. 8. (금)

○ 현 황

- 스위스는 전형적인 낙농국가로 인터라켄시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 젖소 37마리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농가주의 설명을 들었다

○ 시사점

- 우리나라와 달리 가축의 규모는 초지면적 확보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사육두수가 결정되고 있었으면 우리가 방문한 축산농가 우유를 1일 35리터 연 17만리터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치즈 등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어 직접 치즈를 생산함

- 또한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을 통한 우유생산을 위해 매년 협회에서 5만프랑(환화 5000천만원) 지원하는 등 농가에서 마음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었음.



나. 문화탐방

① 방문도시

◆ 베 른

스위스 베른은 구시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스위스 최초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됐다. 취리히, 루체른, 제네바 등 스위스에 명성 높은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는 베른이 유일하다. 베른은 스위스의 ‘당당한’ 수도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 밝힌 등재 사유는 이렇다. ‘알레 강에 둘러싸인 12세기에 조성된 언덕 위의 도시. 몇 세기에 걸쳐 독특한 컨셉으로 도시가 발달했으며 15세기풍의 아케이드, 16세기풍의 분수들을 담아내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18세기에 재건됐지만 옛 개성은 그대로다. 베른에서는 한나절 정도만 할애해도 도시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 슈피탈 거리, 시계탑, 대성당, 뉘데크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목은 걸어서 둘러보기에 충분하다.

베른 구시가의 독특한 개성은 분수대다. 유럽의 거리들과 다른 재미를 안겨주는 것도 마르크트 거리 등 구시가의 중심을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분수때문이다. 분수는 아름다운 형상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자의 입을 열고 있는 삼손의 분수,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있는 백파이프의 연주자의 분수, 식인 귀신의 분수에서부터 마을 창시자와 최초의 병원을 세운 여인을 기리는 분수까지 테마가 다양하다. 그 분수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트롤리 버스(무궤도 전차)가 지난다. 베른은 길과 사람이 가깝다.

오래된 건물 사이, 2차선 도로를 트롤리 버스와 트램이 느리게 오간다. 인도와 차도도 별도의 난간 없이 흰 점선이 대신한다. 트롤리 버스들은 세련된 색으로 치장됐지만 구시가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친근한 거리들 중 명물로 여겨지는 곳이 석조 아케이드다. 유럽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중 하나로 저장고 형태의 반지하 상점이 늘어서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점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 앉아 사람들이 식사를 즐긴다. 시간과 돈을 아끼려는 도시인의 일상이지만 세계유산인 석조 아케이드에 걸터앉아 나누는 그들의 대화에서는 색다른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아케이드를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게 시계탑이다. 베른의 상징이자 가장 멋진 건축물이다. 도시가 생성됐던 12세기 후반에 지어지기 시작해 16세기 중반에 완성됐는데 매시 정각 4분 전부터 곰들과 광대들이 나와 춤을 춘다. 그 시계탑 아래로 또 트롤리 버스들이 오가는데 시계탑은 감옥탑 이전에 베른의 출입구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분수대, 시계탑 등 여기저기서 곰들이 등장하는 게 다소 의아할 것이다. 베른은 곰의 도시다. 도시의 이름에도 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주 깃발도 곰이 주인공이라 도심 여기저기서 곰 깃발이 펄럭거린다. 베른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시를 세운 체링겐 가문이 곰 사냥을 해서 시작됐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뉘데크 다리 건너편에는 곰 공원도 생뚱맞게 들어서 있다.

스위스 최대의 고딕양식의 건물인 베른 대성당은 높이가 100m로 베른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인다. 첨탑에 오르면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가깝게 다가선다. 아인슈타인이 머물며 상대성 원리를 완성시킨 집도 아인슈타인 박물관으로 남아 있다. 뉘데크 다리는 도시를 감싸고 도는 알레 강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베른에서 반생을 보낸 파울 클레의 작

품들도 파울 클레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계유산인 베른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 루 제 른

루제체른 호의 호숫가에 펼쳐져 있는 루체른은 취리히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로 숲과 호수가 꼭 아름다운 곳이다. 스위스 중앙부의 중심도시이다. 루체른 호는 '4개의 숲속의 호수(Vierwaldstattersee)'라고 불리며, 스위스 건국의 기틀이 된 곳이다. 도시 한가운데를 로이스(Reuss)강이 완만하게 흐르고, 거리는 중세의 체취가 풍겨온다.

윌리엄 텔의 전설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른쪽 기슭의 구시가지에는 바이런, 바그너가 여행하며 사색에 잠기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오래된 건물과 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카펠 다리등 구시가지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루제른은 특히 인터라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제일 가파른 필라투스 등산 케이블카를 타러가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루제른은 루제른 주의 중심 도시로 스위스의 굴지의 관광도시의 하나이다

◆ 인터라켄

아레 강을 따라 베른 고지에 있으며 동쪽으로 브리엔츠 호와 서쪽으로 툰 호 사이에 있다. 해발 568m의 평평한 평야에 위치한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 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한 수녀원을 둘러싸고 발달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 관광휴양지이고, 주요 대로(大路)인 회에베크에는 호텔들이 줄지어 있다. 남쪽으로 융프라우 봉(4,158m)의 멋진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알프스 유람 여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직물과 시계가 제조된다. 인구 5,176(1990).

◆ 쉴트호른

쉴트호른(Schilthorn)은 알프스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표고 2970m의 산정에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는 <007>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유명한데, 1시간에 360° 회전하므로 주변의 알프스 산맥들을 두루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흑림 지대와 몽블랑을 잇는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야외 테라스가 있으며,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쉴트호른 전경 》



◆ 카펠 교

1333년 로이스강에 놓인 다리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 다리로 길이가 200m에 이른다. 우아한 형태로 루체른의 상징이 되어 있다.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중에는 17세기 하인리히 베그만의 작품도 10여 점 있다.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의 바서투름(물의 탑)은 등대를 겸한 루체른 방위 탑으로, 위급할 때에는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소 또는 공문서의 보관소 등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있다.

그러나 1993년의 화재로 예전의 카펠 다리는 타버리고 지금의 건물은 1994년 재건된 것으로 밤이 되면 다리 주변에 조명이 들어와 경관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 빈사의 사자상

자연석을 쪼아서 조각한 사자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792년 프랑스 혁명시 틸리리 공원에서 사망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기념비다.

호프교회 북쪽의 작은 공원 안에 있는 사자상으로,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덴마크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으로 1821년 독일 출신인 카스아호른에 의해 완성되었다.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는 사자가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사자의 발 아래에는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흰 백합의 방패와 스위스를 상징하는 방패가 조각되어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사자기념비를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하였으며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숙연한 분위기가 흐른다.



3. 프랑스

《일 반 현 황》

- 위 치 : 유럽대륙의 서쪽에 위치하며 지중해와 대서양의 사이에 있음
- 수 도 : 파리
- 면 적 : 551,695km²(한반도의 약 2.5배)
- 인 구 : 약 62,448천명
- 종 교 : 카톨릭 83%, 이슬람교 10%, 기독교 2%
- 언 어 : 프랑스어
- 기 후 :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지역에 따라 기온이 차이가 큼



가. 기관·단체 방문

□ 프랑스 라데팡스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10.(일)
- 장 소 : 라팡데스
- 참 석 자 : 5명(의원 3, 해설자 1, 공무원 1)
- 내 용 : 신도시 라팡데스 설치개요 및 대담

2. 설명내용

- 도시개요
 - 위 치 : 프랑스 파리 북서쪽 6Km 지점
 - 면 적 : 744ha(A지구 : 154ha, B지구 : 590ha)
 - 인 구 : 11만 5천명
-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8Km 지점 세느강변에 조성된 파리의 부도심이며, 파리의 중심지역에 있는 툴리리공원, 콩코드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등은 라데팡스 지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도시를 관통하는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프랑스 미테랑 정부와 파리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개발 위원회가 1959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개발구상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음.
- 라데팡스는 46만평의 땅위에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 등의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고층·고밀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서 있음. 시내 중심에는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임.
- 관광지가 몰려있는 파리 시내를 구시가지라 한다면 이곳을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데, 라데팡스 지구를 조성할 때부터 구조적으

로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도로 등은 지하로 배치해 자동차 소음도 들리지 않고 차가 보이지 않아 도심의 혼잡이 거의 없음.

-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맞이하여 그랑드 아르슈(프랑스어: Grande Arche)라 불리는 라데팡스의 신개선문인 초현대식 건물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음. 그랑드 아르슈는 하이테크 건축기법을 사용,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물임. 앞의 넓은 광장은 파리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서 여름이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림. 신개선문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으로 샹제리제 거리의 구개선문이 보임.

3. 우수사례

1) 탄력적인 건축규제 방안마련

- 1964년에 발표된 당초의 마스터플랜은 동일 현상의 30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인 인공도시로 계획 되었다.
- 주택은 중층의 8층 건물로서 4각형, 상업용은 저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은 가로 42m, 세로 24m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경관과 수용에의 부적응이 문제 되었다.
- 1970년 마스터플랜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규제에 탄력성 있게 적용
- 건축형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높이 제한은 180m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환영을 받음.

2) 도로체계

□ 입체교통시스템(인공지반 도입과 다층구조 교통여건)

- 비즈니스 지역(48만평)에 거대한 복층도시구조를 설치하고, 도로 · 지하철 · 철도 · 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은 아래층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 복층구조를 통해 교통효율의 극대화, 파리의 전통인 역사성과 예술성의 강조, 공간활용도 제고, 개발비용을 절감.
- 지상에서의 도로 확장, 신규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 부담과 공기 장기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간 이용도를 극대화.
-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지상공간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교통망

- 지하철교통망을 통해 하루 15만여 명을 수송하며 외부유입 승객의 80%를 담당.
- 파리 주변 모든 신도시에서 1시간, 대부분의 공항에서 45분, 모든 파리기차역에서 35분, 파리의 중심업무지구에서 15분에 동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다.
- 14번 고속도로(A14), 지하철 메트로 1번선, RER(고속철도) A선, SNCF(국철), 버스 18개 노선 등이 모두 복층도시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 라데팡스는 많은 버스들의 종점으로 버스를 통해 파리 시내 주변 지역과 연결되고 있다.

□ 교통망 계획이 3가지 원칙

- 남북으로 터널을 뚫어서 한쪽으로 A14번 도로, 나머지는 RN13번 도로를 통과시키고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 설치, 그 위로는 정원과 상업 시설군을 배치하였다.

- 한 개의 튜브를 이용해서 두개의 터널을 연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3개나 4개의 작은 길들을 A14 도로와 통하게 연결했다.
- 지하부분에 치중한 계획으로 각각 3차선 크기의 일방 도로를 배치, 메트로(metro)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일관된 도시설계 작업

□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

- 지난 40여 년간의 개발기간동안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 연결’이라는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설계구조를 유지하였다.
-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콩코드광장-상제리제거리-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 선상에 놓여 있다.
- 루브르 박물관-개선문-라데팡스로 이어지는 8km의 일직선 길을 일컫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설계를 하였다.
- 라데팡스 신도시는 낭테르 쿠르브부와 퀴토 등 3개시에서 일부 지역을 흡수, 중심축 좌우가 대칭이 이루어지게 구획했다.
- 별개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대도시인 파리와 연계성을 강조 하고 파리에서 라데팡스를 거쳐 북서쪽 25km에 위치한 세르지퐁트 와즈 신도시 전망대까지 축이 연장되게 하였다.

□ 관광 신도시

- 유럽최대의 업무단지인 동시에 관광적 요소가 극대화된 신도시이다.
- 최고의 비즈니스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도시설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트인 공간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였다.

- 그랜드아치(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작) 등 대형 건축물과 전망대를 설치했다.
-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도시라는 평가와 더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 복층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보행자와 전용으로 합과 동시에 소형 관광버스만은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5. 성공요인

□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과 편리한 인프라구성에 의한 기업의 유치

1970년대 이후 프랑스 국내외 기업들의 진출이 줄을 이었고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기업이 이곳에 본사나 지사를 설치했으며 엘프아퀴인사, EDF 토탈사, 프랑스텔레콤 등 프랑스 상위 20개사 중 14개사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엑손, IBM, 모빌 등 세계적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 완벽한 교통망 구축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도시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초기부터 정부보조 및 건축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되었다.

6. 시사점

- ◎ 도시내 건물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파리 중심부의 역사적 보전건물과 대비하여 신도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었다.
- ◎ 신도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철도, 버스, 주차장 등)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 파리주민의 인구분산 효과를 얻기보다는 파리 구도심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지구를 건설하였다.

《신도시 라데팡스》



대형형 건물매스



신개선문에서 바라본 건물군



입체 교차



신개선문에서 바라본 건물군



라데팡스 지하철입구



강렬한 직선축



라데팡스 스카이라인



그랑아쉬, 신개선문



교통망 모형



지하데크 보행자도로

□ 프랑스 하수도 박물관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11.(월) 11:00~12:00
- 장 소 : 파리지하 하수 박물관
- 참 석 자 : 6명(의원 3, 하수 박물관 직원 1, 통역 1, 공무원 1)
- 내 용 : 프랑스 하수 박물관 설치개요, 운영방법 설명 및 대담

2. 설명내용

- 파리 지하 하수 박물관은 파리 7구 레지스탕스 광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처리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해 만들었음.
- 박물관은 500m 가량의 지하 터널을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들을 전시하고 파리 하수구의 역사와 구조 하수처리와 안전장치 시설, 하수구 청소법을 알려주고 있음.
- 파리 하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 나폴레옹 3세 때 쎈지 사인 후스만 남작이 계획하고 토목공학자인 위렌 벨 그랑에 의해 하수 차집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설치 완성 됐으며 하수관망은 저지대에서의 펌프장 시설이 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연 유하가 되도록 설치하였음.
- 현재 하수도 총 연장 길이는 2,400km로 파리 시내도로 총연장 길이 1,500km의 두 배에 이르며 모든 도로의 밑에는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하수도관망이 주소가 있으며,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파리 하수도의 기본적인 구성은 1단계 관망과 2단계 관망 그리고 3단계 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관망에는 상수도관(음용수관), 중수도관(사용가능 하지만 먹지 못함), 전기 배선관 송풍관등

이 함께 매설되어 있음.

- 파리 시내에는 각각 약80~120kg인 맨홀이 100m마다 총 2만 6천 개가 설치되어 있음.
- 파리 하수도의 특징은 첫째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며, 둘째 하수와 우수가 통합된 하수는 세느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시로부터 17km 떨어진 오수 처리 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됨.
- 보통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불리는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 길거리 청소물로 쓰임.
- 파리 하수도 특징인 이중수포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으면 이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임.

3. 질의답변

- 1850년대에 하수도 망이 완공됐다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도로기반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수도 망을 완벽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 근대식 하수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전염병이 번지자 오물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하수관 설치 아이디어가 나온 것임.
 - ⇒ 그 후 cholera가 물이나 음식물에 들어 있는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부터 하수도 시설이 본격화되었음.
 - ⇒ 사실 근대식 하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대도시들은 오물 투성이었음.
 - ⇒ 당시 프랑스의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아하게 차려 입은 귀부인들이 오물을 버리는 것을 당연시해서 파리 등 도

시의 골목은 오물과 심한 악취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음.

⇒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 길거리는 오물과 함께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으며, 따라서 긴 치마를 입고 다녔던 당시 여성들에게는 외출이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었음.

⇒ 그래서 나온 게 오물이 치마에 닿지 않게끔 굽이 높은 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이힐(high-heeled shoes)이며, 또 이처럼 밖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향수를 개발하기도 했었음.

○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물 때문에 하수도관이 막히지는 않는가?

⇒ 하수도망에 오물이 들어오면 1차 하수도망을 거쳐 2차 하수도망과 3차 하수도망에서 별도 오물수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음.

○ 오물을 수거시스템에서 수거한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수거가 되지 않아 하수도가 막힐 수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하수구 크기별로 축구공 크기에서부터 지름이 1.5M 크기의 나무로 된 공을 하수구에 넣으면 하수구 물을 따라 나무공이 구르면서 청소를 하고, 공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청소원들이 2인 1조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청소를 하고 있음.

○ 하수도에 번호가 다 있어서 하수도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고하면 찾아줄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 사실임. 파리 하수관망의 특징은 도로주소와 하수관망 주소가 일치하여 귀중품을 도로 배수구에 떨어뜨려도 정확한 지점만 기억한다면 80% 이상 찾아서 돌려주고 있음.

4. 시 사 점

- 파리 하수도망은 설치된 지 160여 년이 되었지만 특별한 보수를 할 필요가 없이 오염물질 제거 등 시설유지 관리만 할 정도로 튼튼하고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음.
 - 지금부터라도 100년을 바라보는 시설설치 사업장성읍 전선지중화 시설 설치 및 황룡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100년을 시행을
 - 프랑스 파리는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년 중 관광객이 8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데, 잘 만들어진 오염시설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관광자원의 기능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파리 하수도 방문객 : 1일 2~3천 명(입장료 1인당 4유로)
- 《하수구 박물관 방문》



나. 문화탐방

① 파 리

교외를 포함한 ‘파리 [데파르트망](#)(Department)¹⁾’은 면적 2,723km², 인구 약 993만 명(2006)이다. 오랫동안 센 데파르트망의 수도였으나 1964년부터 파리만으로 독립 데파르트망이 되었다.

[파리](#)는 [프랑스의 정치·경제·교통·학술·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꽃의 도시’라고 불리며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도시’라고 부른다.

세계의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하여 몹시 좁은 편에 속하지만 둘레 36km의 환상도로(옛 성벽 자취)에 둘러싸인 부분이 1860년 이래의 파리지이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의 0.25%에 이르는 면적에 전인구의 약 6분의 1이 집중해 있는 ‘대파리’는 해마다 10만~15만 명씩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 재정지출이나 상업거래량도 전국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에의 집중현상’은 프랑스의 특징이며, 파리는 세계 제4위의 인구밀집 지역이다.

센강(江)이 남동쪽에서 시가지로 들어와 [생루이섬](#)과 [시테섬](#)을 감싸안으면서 북쪽으로 크게 만곡을 이룬 다음 남서쪽을 거쳐 시외로 흘러나간다.

따라서 동쪽으로는 [뱅센 숲](#), 서쪽으로는 [블로뉴](#) 삼림공원이 이어진다. 센강의 남쪽을 ‘좌안(左岸:리브고슈)’, 북쪽의 보다 넓은 지역을 ‘우안(右岸:리브드루아트)’이라고 부르며, 시 주변에는 [로마](#)의 ‘일곱 언덕’을 연상시키는 언덕이 줄지어 솟아 있다. 연평균기온은 10℃, 1월 [평균기온](#) 3℃, 7월 평균기온 19℃로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강우일수는 연평균 189일, 강수량은 600mm이다.

◆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궁전을 미술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장된 미

1) 데파르트망은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되며, 하급단위로는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캉통, 코뮌(commune) 순으로 나뉘어진다.

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원래 루브르궁에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 특히 프랑수아 1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등이 수집해 놓은 방대한 양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후인 1793년 국민의회가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술관으로 정식 발족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미술품 수집이 계속되어 오늘날의 대미술관이 이루어졌다.

개관 이래 프랑스 미술의 중심적 구실을 하면서 전세계의 미술가나 미술 연구가 및 애호가들이 수없이 찾아들어 파리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어 있다.

특히 젊은 화가나 조각가에게 거장(巨匠)들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또한 루브르미술관의 관장(館長)이 전국의 공·사립 미술관 운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프랑스 미술관 행정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수집된 미술품은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오리엔트 및 유럽 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것만 해도 총 20만 점을 넘는다. 작품은 각 부분마다 연대·지역별로 분류되어 광대한 루브르궁전의 북동(北棟)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물의 각 층에 배치되어 있다. 회화·공예 부문은 2·3층에, 조각 부문은 1·2층에 진열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인상파 이후의 회화 부문 역시 루브르미술관 소관인데 그 작품들은 '인상파미술관'에 전시하다가, 1986년에 완공된 오르세미술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며,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비롯하여 모네·드가·피사로·르누아르·세잔·고흐 등 근대 회화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들의 우수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슈 미술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가량에 이른다.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루브르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설치돼 있다.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 밍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 당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유리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면 나폴레옹 홀로 이어진다. 안내 센터, 매표소, 서점, 휴대폰 보관소, 뮤지엄 숍 등이 있다. 이곳에서 티켓이나 필요한 가이드북을 구입하고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한다. 전시관은 드농(Denon)관, 리슐리외(Richelieu)관, 쉴리(Sully)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전시관은 지하에서 3층까지로 이뤄져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므로 가능한 한 같은 층에서 다른 전시관으로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편이 낫다.

지하층(Entresol)에는 고대 오리엔트 • 이슬람 미술작품과 이탈리아 • 스페인 • 북유럽 조각품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 조각품은 지하에서 1층에 전시돼 있다. 유리로 이뤄진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더욱 입체감 있는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다.

1층(Rez-de-chaussée)에는 고대 이집트 • 그리스 • 로마 미술품도 전시돼 있다. <밀로의 비너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1^{er} étage)은 유명한 작품이 많아 항상 붐비는 곳이다. 19세기 프랑스 회화가 전시돼 있는데 앵그르, 다비드, 들라크루아와 같은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도 2층에 전시돼 있다.

《 루브르 박물관 》



◆ 개 선 문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다.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로마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대로 본떠 설계했다.

로마 시대에 개선문 아래로 행진하도록 허락된 자는 영웅뿐이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한 황제와 그 부하들이 개선문 아래로 개선행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런 일이었다.

파리에서도 4년간의 독일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샤를 드 골 장군이 이 개선문 아래로 당당히 행진했다. 개선문은 높이 약 50m, 너비 약 45m로, 외부에는 10개의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부조는 나폴레옹 1세의 공적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으로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개 선 문》



◆ 에 펠 탑

1889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박람회를 계획하면서 이에 적합한 기념물의 설계안을 공모했다. 100여 점의 설계안이 제출되었으나, 100주년기념위원회는 유명한 교량기술자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안을 채택했다.

높이 300m의 노출격자형 철구조를 세우려는 에펠의 구상은 경이와 회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미학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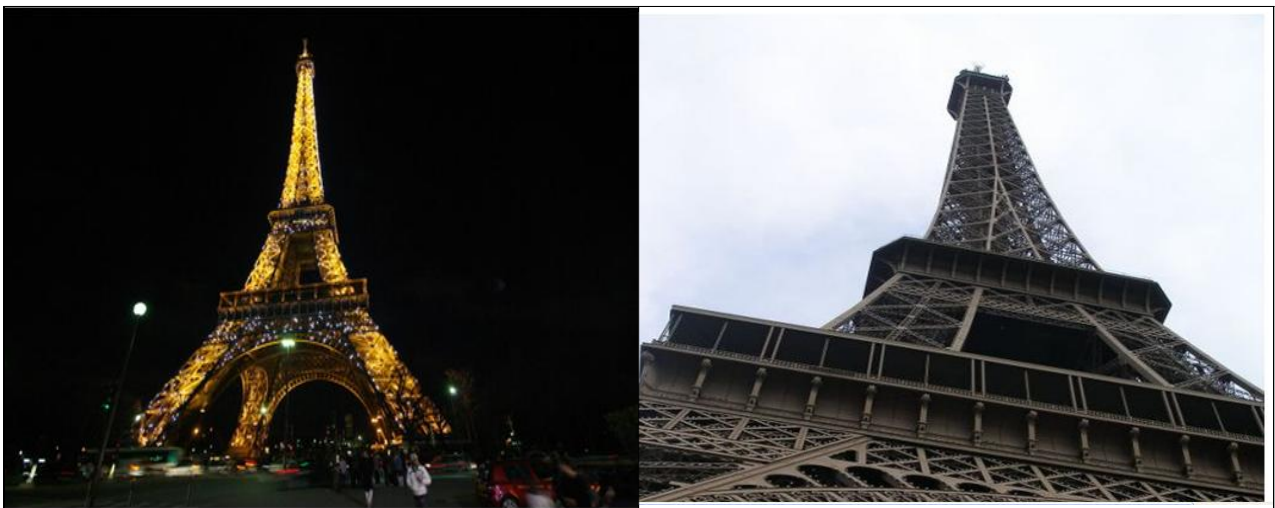
조금이라도 이와 비슷한 구조물은 여태껏 지어진 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 탑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나 기자의 대(大)피라미드보다 2배나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옛날 기념물과는 달리 에펠의 탑은 적은 노동력과 싼 비용으로 몇 달 만에 세워졌다. 풍력(風力) 등의 하중을 받는 금속 아치와 금속 트러스의 성질에 관한 앞선 지식을 활용해 건설된 이 구조물은 토목공학과 건축설계 분야의 일대 혁명을 예고했으며,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미학적 가치를 입증했다.

4개의 반원형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 탑의 기단은 공학적인 배려와 함께 에펠의 예술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했다. 미국의 오티스엘리베이터회사에서 설계한 유리 승강기는 이 건축물의 주요특색으로, 에펠 탑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로 부각시켰다.

에펠 탑은 1930년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자리를 지켰다.

《 에 펠 탑 》



◆ 상젤리제 거리

프랑스파리 시의 2km 길이의 길이다. 동쪽의 콩코르드 광장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샤를 드골 광장에투알 개선문까지이다. 피에르 드라노에가 이 거리의 이름을 바탕으로 Aux-Champs-Elysees란 노래를 작곡하였다.

상젤레제란 이름은 엘리시온 들판(Elysian Field)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믿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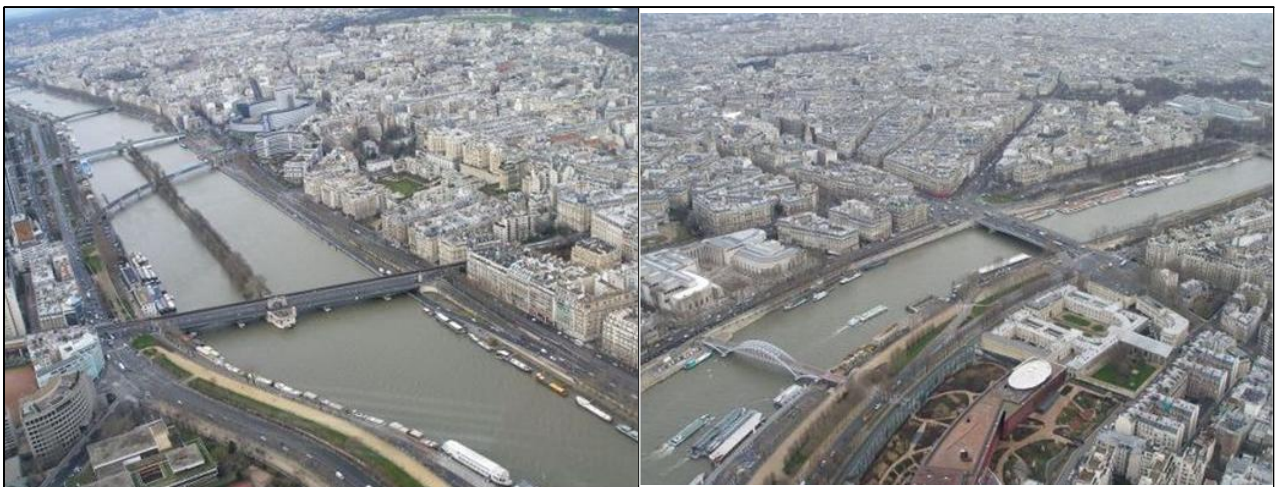
상젤리제 거리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천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리도쇼를 볼 수 있는 리도극장도 이곳에 위치한다

◆ 세 느 강

총연장 780km에 유역면적은 약 7만 8,700km²에 달한다. 이 하천의 유역은 파리 분지 북반부에 발달했으며, 주요하류는 이 분지의 동남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상파뉴와 파리 지역을 경유하고, 노르망디 지방을 통과하여 대서양에 유입하는 동남-서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수세기 이상 프랑스의 수도였고, 서부 유럽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가 이 하천의 중하류 유역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센 강은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강의 하나로서, 프랑스 내륙 수운의 대부분이 이 강의 하계망에 의존해왔다.

파리는 센 강과 그 지류의 주요합류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 강과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는 떼레야 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센 강 유역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지방은 프랑스 왕국의 요람이자 역사적으로 국세 확장의 거점 구실을 해왔으며, 지금도 대도시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심지이다.



◆ 노트르담 대성당

중세 고딕 양식의 대성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성당으로 그 규모와 오랜 역사로 유명하며, 고고학과 건축학적 관심의 대상이다. 파리 센 강에 떠 있는 시테 섬에 있다.

파리 주교 모리스 드 쉴리가 이전에 있던 2개의 바실리카식 교회당을 합쳐 하나의 큰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머릿돌을 놓고 1189년 대제단이 봉헌되었다.

서쪽 앞면의 성가대석과 네이브[身廊]는 1240년 완공되었고 그뒤 100여년에 걸쳐 포치(porch), 예배당, 그밖의 여러 장식물들을 지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흠집이 생기고 약해졌으며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크게 파손되어, 19세기에 서쪽 정면 '그랜드 갤러리'의 28개 조상과 3개 출입문 측벽에 서 있는 조상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트랜셉트[翼廊]와 네이브 사이에 높이 솟은 첨탑은 19세기에 복원된 것이다.

전체 길이 130m, 폭 48m, 천장 높이 35m, 탑 높이 69m의 대건축물로 탑 위에 뿔족탑을 덧붙이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 그대로이다. 4각형 쌍탑과 쌍탑의 선을 따라 정면을 3부분으로 나눈 버팀벽의 수직선과, '그랜드 갤러리'의 수평선이 '장미창'(薔薇窓)을 중심으로 비할 데 없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면에 3개 입구와 그 입구의 이름과 관련지어 만든 조각, 그 위에 유대 왕과 관련있는 조각이 들어서 있는 갤러리, 직경 10m에 가까운 장미창, 그 위에 긴 열주(列柱), 좌우의 탑 등 양식은 고딕 건축의 전형으로 성당 건축의 규준이 되었다. 내부는 아일[側廊]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네이브는 거대한 원주가 끝에서 3개의 기둥으로 나뉘면서 천장으로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높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엄한 종교적 공간을 연출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북쪽 정면의 장미창을 제외하고는 후세의 작품이다.

오른쪽 출입구의 〈성모자 聖母子〉(1165~70경), 왼쪽 출입구의 〈성모 대관 聖母戴冠〉(1210~20경), 중앙 출입구의 〈최후의 심판〉(1220~30경),

북쪽의 〈붉은 입구〉, 내진(內陣) 주위를 장식한 진한 색깔의 〈그리스도 전(傳)〉(14세기)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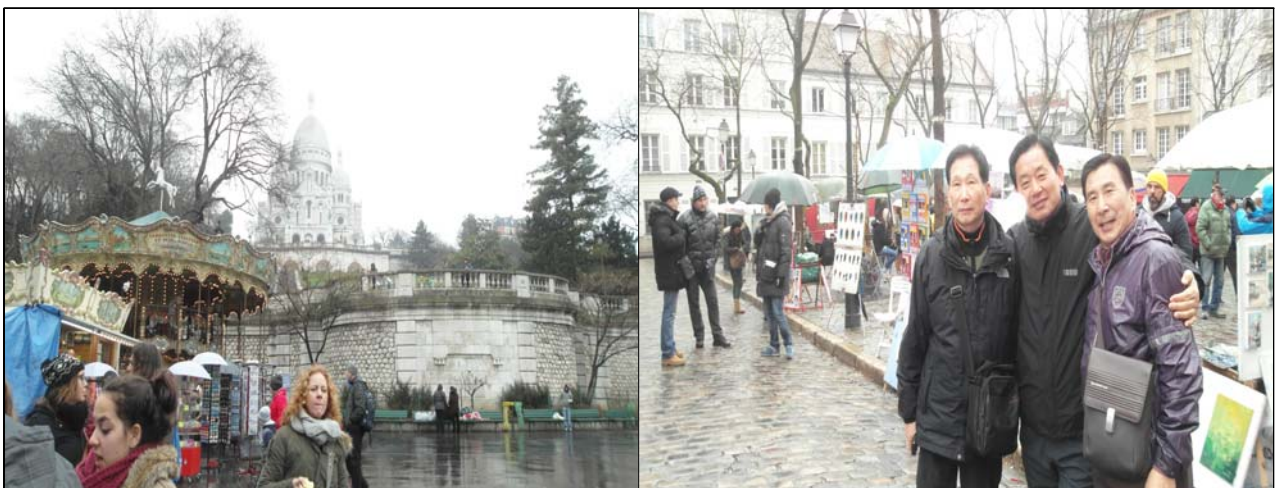
이 성당은 나폴레옹의 대관식(1804), 파리 해방을 감사하는 국민예배(1944. 8. 26)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의 꼽추〉의 무대이기도 했다.

◆ 몽마르뜨 언덕

프랑스파리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종교적 분위기와 시대에 따른 미술사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주거지역이기도 하면서 역사·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여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꼭 들르는 곳이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로,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 칸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영화 촬영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예술적 모습을 띠는 지역이 밤에는 환락가로 변한다.



Ⅲ. 연수소감 (연수후기)

-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가야만 갈 수 있는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유럽 선진 3개국을 둘러보면서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환경·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마음, 그리고 선진국 국민의 자긍심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음.
- 첫 번째로 도착한 영국 런던은 지난 산업혁명 이후 각종 대기오염 및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버린 템즈강의 생태계의 복원에 성공했던 환경정책과 잘 보존된 옛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의 조화를 이루는 버킹검궁전, 국회의사당, 웨스터민스터사원, 타워브릿지 등 시설물을 인상 깊게 보았음.
- 또한, 런던시의 자치구 웨스터민스터시 의회의 경우 의원내각제로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중에서 의장이 되고 의장이 시장을 겸하며 국장급 10여명을 임명하여 시정을 이끌러 가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정책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규모가 큰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인근 2~3개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상생의 정책을 펴고 있었음.
- 두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는 알프스의 200여개 넘는 웅장한 고산 봉우리와 만년설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관광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음.
- 그리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15명인데 간호사 등 관리인력이 16명에다 개인별 방,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 등 복지수혜대상자를 지역사회내 사회통합차원에서 자선적 대상이 아닌 권리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펴고 있음.
- 초지가 많아 낙농업이 발달한 스위스는 초지면적 확보에 따라 가축사육 두수를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치즈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그리고 협회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음.(예 37두 젖소농가 : 연 5,000천만원금 지원)

- 마지막 방문국인 파리는 프랑스 정치·경제·교통·문화·학술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로 꽃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도심지의 젓줄인 세느강과 개선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등이 눈길을 끌었음.

특히 파리도심에서 8km 떨어진 세느강변에 위치한 신도시 라데팡스(도심건설 : 1959년~1990년 완료)는 도시내 건물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파리 중심부의 역사적 보전건물과 대비하여 신도시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리고 마지막 방문시설인 하수도 박물관은 160여전에 설치된 파리의 하수도망으로 현재 특별히 보수를 할 필요가 없이 오염물질을 처리할 정도로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함.
이에 따라 일부시설을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1일 2,000~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함.

- 위의 선진국의 정책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군도 무문별한 개발보다는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시책사업 결정, 도시계획, 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항상 고민하고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갖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